

식민지 신문 '사회면'의 감정정치

사회적 사실들의 정치적 서사화*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이 연구는 1920~1930년대 식민지 시기 신문의 사회면-사회적 보도가 정치적으로 부호화되고 해독되는 양식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민족국가와 정치부재, 그리고 주밀한 검열체제 하에서 신문은 비정치적 장르를 정치화하는 담론전략을 시도하며 사회면은 이 식민지적 맥락 안에서 정치적 언설로 구성되고 해독되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첫째 민간지의 사회면의 위상 및 편집방향, 둘째 사회면의 사회적 사실을 생산하기 위한 취재, 조직, 기자, 기사작법, 셋째 사회면을 둘러싼 신문과 기자의 부호화 전략 및 이에 공조하는 독자의 해독 규약을 분석했다. 사회면 또는 사회적 사실의 정치적 양식화는 객관적 사실보다 이면의 심리적 사실을 중시하고, 식민지 현실의 부정적 현상(現狀)에 주목하면서 운명공동체로서 민족적 비참을 형상화하며 뉴스를 극적 구조의 감정적 현실 서사(實事敍辭)로 구성하였다. 사회면은 민족공동체적 감각을 공유하고 유지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민족적 감정을 동요하는 취재보도와 기사의 양식화를 이룬 것이다. 식민지에서는 모든 사회적 사실들이 정치적 문제로 환원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사회면에 배치되는 사회적 사실들에 정치적 함의를 덧씌우기 위한 식민지 지식인/기자들의 전략과 전술, 의도는 식민지 저널리즘의 한 특수한 양상을 드러낸다.

KEYWORDS 사회, 사실, 정치, 양식화, 식민지, 감정, 심리, 비참, 민족주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5).

** syfarthom@gmail.com

1. 식민지 저널리즘의 ‘사회면’ 의 정치학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신문-민간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치보도의 부재와 그 부재를 대신하는 사회보도의 중요성과 역할이다. 정치면이 국가 및 행정영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감시에 방점을 둔다면 사회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범죄, 추이, 사건 등을 다루는 데 이것들은 통상 인간적 관심사(human interest)로 분류되기도 한다. 식민지 시기의 신문 지면의 분할도 크게 보면 이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편집국의 조직과 신문독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 분류는 맞지 않는다. 정치부는 논설 외 일본통신사의 전보에서 일본 및 세계 정치관련 기사를 번역하는데 주력하는데 반해 식민지 정치와 행정영역인 총독부, 경성부청(京城府廳)과 도청을 전담하는 부서는 사회부였고 이는 1920년 이래 『매일신보』를 포함 모든 신문이 채택한 편집국 체제였다.¹⁾

일제 시기 기자들의 회고나 리포트, 기타 주요 인사들의 신문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면 혹은 3면이 신문사로서나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시되는 지 지적하고 그 자체를 기형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글은 쉽게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말 『동아일보』 사회부장이었던 현진건(1900~1943)은 편집국 인원의 1/3 이상이 사회부기자인 이유는 ‘정치없는 우리에게 많은 감흥과 자극을 주는 것은 민중의 생활상이고 사회의 동태인 까닭에 사회면에 신문의 사활을 걸기’ 때문이었다.²⁾ 그래서 사회면 편집은 신문전체에 대한 편집과 마찬가지로 독자도 사회면에서 중대한 사건을 보는데 의미를 두므로 편집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³⁾ 신문사, 기자, 독자 모두에게 사회면은 가장 중요했다. ‘정치면은 조선 내에 생기는 정치적 사실이 없어서 일본계 통신사가 전하는 외보(外報)나 전보를 번역하므로 외국정치면이라고 해야 맞고, 경제면도 기껏 미두(米豆)시세로 지면을 채우며, 학예면은 남의 것 소개에 급급하고 가정주부에게 주는 참고자료도 문화정도가 달라서 실생활과 어긋나는 것이 많은’ 처지에서 조선 사회와 ‘시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록보도’하는 사회부가 그나마 외국신문의 정치부 역할을 하는 기형적, 탈선적 신문이라는 것이다.⁴⁾

1) 三新聞의 陣營. (1931.12). 『동광』, 82~85. 일례로 1931년의 이 기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편집국 부서별 담당기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동아일보』의 경우 사회부 기자는 부장 포함 7인인 데 비해 정치부는 2인이다. 『조선일보』는 5:2, 『매일신보』는 7:2의 구성이다.

2) 현진건(1930.8). 사회면과 편집, 『철필』, 8월호, 18~20쪽

3) 유광렬(1930.8). 사회면편집에 대한 의견 苦心談, 『철필』, 8월호, 21쪽.

4) 신문사와 그 조직(1930.8). 『철필』, 8월호, 13~15쪽.

신문의 편집체제와 조직구성, 취재활동에 대해 기형 또는 탈선이라는 표현은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오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출간된 신문이론서를 발췌 번역, 게재한 연재 칼럼에서 미국수정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자유 개념이나 제4부론, 신문의 여론형성 기능 운운 한 데서 보듯⁵⁾ 또 신문을 사회의 목탁이니 무관의 제왕으로 규정하면서 다소의 자괴감을 드러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고 개입하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식민지현실에 대한 좌절이었다.⁶⁾ 『동아일보』가 창간 후 2개월이 채 안 되어 사설 “언론자유, 정치적과 사회적 자유”를 통해 역설한 것은 정치와 사회, 언론의 3자관계가 비대칭의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토로하면서 정치 보다 사회면이 신문의 전위(前位)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기관과 법률을 통해 인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상 인민 상호간에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 이 두 가지 자유가 겸전(兼全)해야 만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데 현재 언론자유란 정치적 자유는 없고 사회적 자유 또한 흠핍(欠乏)된 것이라면서⁷⁾ 결핍된 채 주어진 사회적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을 토로한 것이다.

사회적 자유란 ‘인민 상호 간에 보장하는 자유’, 즉 집회, 단체결성, 운동의 조직 등의 자유를 의미했고 국가에 대한 자유는 애초에 배제되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민족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정치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를 분출했던 3·1만세운동 이후 1920년대 초 세계정세의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1차대전은 경험해보지 않은 인류의 대참사였고 이는 열강의 제국주의 영토 경쟁, 자본주의 체제, 이성중심주의적 서구문명론의 문제라는 반성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세계개조의 문화주의가 새로운 사상으로 부상했고 일제도 식민지 경영을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이런 반제국주의와 민족자결주의의 세계적 전환국면에서 정치가 어떤 형태로든 식민지민에게 일말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인식된 것은 당연했다. 많은 제약 속에 허용된 사회적 자유를 정치적으로 동원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창간 다음 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

5) 오기영(1930.1.23). 新聞小考 7, 『동아일보』, 3.

6) 일례로 1927년 현재 『동아일보』 사회부 외근기자로 재직 중인 김동진은 신문기자가 무관제왕, 백의(白衣) 제상, 사회의 목탁, 독립불패자(獨立不羈者), 정의의 심판자, 엄정한 보도자였던 시대는 1890~1900년대에 그치며 신문사가 상품제조의 공장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통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관의 제왕이 될 수 없는 불행에 처했어도 정의감은 사라지지 않아서 사회민중의 선발(選拔)을 받아 공무에 종사한다는 자각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동진(1927.12), 신문기자의 사회적 고민-신문강연록 제1석, 『별건곤』 제10호, 60~62쪽)

7) 사설(1920.5.29). 『동아일보』, 1.

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는 이 정치와 사회가 겹쳐지는 ‘중층성의 맥락’을 드러낸다. “현금(現今) 만파(萬波)운동의 본체는 개혁뿐”이라면서⁸⁾ 조선의 개조를 위한 민족운동은 “국가학의 국민운동이 아니고 역사학적, 인류학적 개념인 민족의 운동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국가와 국민의 맥락이 아닌 “3·1운동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민족의 맥락에서 세계개조의 대조류에 임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때 민족은 ‘역사적 산물로서 공통경험에 기반한 운명공동체이며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존재, 영속하여 흐르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개인이 양육되고 인격은 사회의 민족이 부여하며 그 내용을 이루는 도덕과 지식도 사회로부터 획득한 것’이라는⁹⁾ 사유 안에서 민족개념이 사회개념과 결합하고 중첩되는 논리가 만들어 진다.

‘사회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과 사회를 결합시킨 식민지적 혼성어인 셈이다. ‘사회의 민족’은 세계 개조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추진하는데 이 사회운동은 세계적 조류인 문화주의에 동참하는 대문화운동이다. 그리고 이 때 ‘문화는 반드시 정치적 정의를 의미하거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함이 아니’라고 천명한다. “충명한 조선 민족이 정치적 의미로만 저와 같은 일대 운동(3·1운동: 필자주)을 야기했’겠느냐면서 오직 “치(治)의 의(義)”를 이루길 기도한다고 하였다. ‘정의 인도를 위해 국내와 국제 생활 면에서 일대 용사가 되는 방법은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두 가지이나 우리는 오직 사회적 방법으로만 한 덩어리가 되어 실업, 교육, 기타 사회적 만반 경영에 개인이 서로 협력, 연락하여 구악(舊惡)의 사회를 벗고 신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¹⁰⁾ 일제 문화통치의 맥락 안에서 <민족=사회=사회운동=문화운동=정치적 정의구현≠정치적 독립>이라는 개념의 연쇄가 구축된 셈이다.

이 개념의 연쇄를 통해 정치적 정의를 사회개조와 문화운동을 통해 구현하는 『동아일보』의 문화적 민족주의가 기획되었으며 사회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록 보도함으로써 정치적 정의를 실천한다는 방향이 정립되었다. 이 방향은 『동아일보』의 창간 3대 주지(主旨)에 함축되어 있다. 민중의 표현기관, 민주주의, 문화주의 지지를 선언하고 인류의 운명이 평화주의와 정의에 근본한 인도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인이나 사회의 생활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곧 부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과 도덕의 순수와 종교의 풍성과 과학의 발달과 철학예술의 심원오묘’라고 한 것이다.¹¹⁾ 1차 대전 종전 직후 1920년대 초의 식민지현

8)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1(1920.4.2). 『동아일보』, 1.

9) 세계개조의 벽두를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3(1920.4.6). 『동아일보』, 1.

10) 세계개조의 벽두를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4.(1920.4.7). 『동아일보』, 1.

실과 문화주의 맥락 안에서 식민지민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사회적 자유 안에서, 세계 개조의 방법으로서 문화운동을 선택하였고 문화운동의 주축이 된 신문의 사회보도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효과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 사람의 엇더한 부대(部隊)의 "이즘"을 대표하는 쩌널리즘으로서 신흥(新興)의 기세에 잠긴 조선 사람의 정치의식을 가능한 한 환기 고조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¹²⁾ 1920년 9월 "은어와 반어로 은연히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며 총독정치에 대해 이해 없는 악평을 가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발행정지를 당하는¹³⁾ 식민지 검열체제 하에서 사회보도의 중층성과 다의성을 둘러싼 일상의 긴장과 쟁투가 연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신문의 사회면-사회적 보도가 정치적으로 부호화되고 해독되는 중층성과 다의성의 식민지적 맥락을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수준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첫째 식민지 시기 민간신문 사회면의 위상과 사회면 기사의 성격을 고찰하고 둘째 사회면이 구성되는 방식-취재, 조직, 편집 등-을 분석하며, 셋째 사회면이 정치적 코드로 생산되고 해독되는 메커니즘, 다시 말해 사회면이 정치적 코드로 양식화(樣式化)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식민지에서는 모든 사회적 사실들이 정치적 문제로 환원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사회적 사실들에 정치적 함의를 삽입하기 위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부호화 전략과 전술, 의도 분석을 통해 회색의, 국가부재의, 개인의 주체화(개인주의화)가 유보된 식민지민의 민족-사회 공간에서 형성된 정치적 실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윤해동, 2003/2007).

2. 문화정치의 '사이 안'에서 구성된 민족사회의 사회적 사실들

1차 대전 이후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근대주의에 대한 성찰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신낭만주의에 기반한 생활 및 문화운동으로 이어졌고 정신, 도덕, 문화, 반문명주의, 반기계주의, 민족적 특수성, 전원과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주의가 전후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유선영, 2014). 더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시아

11) 主旨를 천명하노라(1920.4.1). 『동아일보』, 3

12) 李宣根(1930.9). 최근 조선의 쩌널리즘 측면관. 『철필』, 19~20쪽.

13) 續刊에 임하여 독자 제군에게 告하노라(1921.2.21). 『동아일보』, 1.: 1920년 9월 25일 3개월의 발행정지를 당하고, 2개월의 속간 준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속간하는 소회를 피력하고 발행정지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및 아프리카 피식민지 약소민족들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자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로서는 제국주의 영토경쟁을 일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세 안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의 식민지통치방식에 대한 서구의 의혹과 경계, 특히 만주 지배를 둘러싸고 미국의 배일정책이 심화되자 일본은 문화통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아키후미, 2005; 전상숙, 2004). 일제는 병합 10년의 결과 조선의 문화가 일본인과 같은 우대를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내지연장주의 및 일시동인(一視同人)의 원리를 시행한다고 선전하면서 지방자치, 관리임용의 차별개선,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설비, 대형금지, 신문잡지 발행, 집회결사 묵인, 교육, 산업정책 및 산미증산 등을 문화정치의 시정목표로 내세웠다.¹⁴⁾ 그리고 조선인이 일본 헌법의 규정을 받는 법적 존재로서 정치참여의 권리 및 자유를 누릴 때 식민통치는 완성되므로 그 때까지 제국신민으로 국가시책에 순응해야 한다는 논리에 방점을 두었다.¹⁵⁾

반면 조선인은 일제의 문화통치, 즉 문치(文治)를 데모크라시 개념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기대했다. 데모크라시를 전후 세계의 도덕적 개조의 방향으로 인식했고¹⁶⁾ 정치적 자유, 민의에 의한 통치, 교육기반확대, 산업발전, 사회제도 개선, 문화제도 설립, 자유와 권리 신장 및 정치참여까지 기대한 것이다.¹⁷⁾ 그러나 이내 문화통치는 무단통치와 별 차이가 없는 기만책이라는 좌절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일제가 1930년대 전시체제에 들기 전까지 조선인에게 문화정치의 준거는 데모크라시였고 그 준거를 기준삼아 문화정치를 교언영사(巧言令辭)의 기만책,¹⁸⁾ 조선인의 비절위극(悲絶危極)한 경우(境遇)가 증명하는 거짓 문화정치,¹⁹⁾ 소리만 큰 문화정치(蚊化政治)라고 비난했다. 대중의 정치참여를 본질로 하는 데모크라시, 민중주의적 정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⁰⁾

일본의 문화정치와 조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지만 그 간극은 양 자의 타협과 조정의 여지를 가진 간극이었다. 일본이 신문잡지를 조선

14) 波多野承五郎(1921.4.12). 조선통치방침(3), 『매일신보』 1(사설); 靑史에 特記할 進취 文化정치(1938.5.3), 『매일신보』 2; 김환(1924.5.11), 문화정치의 一轉機(상), 『매일신보』, 1(사설).

15) 김환(1924.5.12). 문화정치의 一轉機(하), 『매일신보』, 1(사설).

16) 이돈화(1920.11). 조선인의 민족성을 논하노라. 『개벽』 제5호, 2~10쪽.

17) 경제시론: 허위의 문화(하)(1925.1.18). 『동아일보』, 3. ; 宋鼎瑱(1929.1.1~1.2), 문화정치의 표리. 『동아일보』, 3.

18) 총독정치의 제도적 비판(상)(1922.1.11). 『동아일보』, 1.

19) 경제시론: 허위의 문화(상)(1925.1.7). 『동아일보』, 3.

20) 횡설수설(1922.5.9). 『동아일보』, 3.

인의 여론동향을 탐지하기 위한 풍향계 쫄음으로 여겼다 할 지라도 이를 통해 조선인 지도자들이 총독부 고위층과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며 논의하는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었다. 1910년대 내내 유명무실했던 총독부기자단이 재건되었고 신문들은 일본 제국대학 등 유학생 출신 이론가들을 총독부에 배치했다. 처음 4~5년간 이들 출입기자들은 무관의 제왕다운 중량감과 위세를 떨쳤다고 평가되는데 신문을 압수당하면 총독부 고등경찰과장, 경무국장, 정무총감, 총독까지 만나 이유를 따지는 등 기세가 대단했다는 것이다.²¹⁾ 그리고 이 간극 안에서 조선의 민간 신문, 잡지들, 『동아일보』와 『개벽』 같은 민족주의 우파계열 미디어가 조선사회의 담론을 주도했다(최수일, 2008, 420~454쪽; 김명규, 2002). 신문 사회면은 이 간극 안에서, 즉 부르주아 우파의 민족주의와 일제 문화통치 '사이 안'(in-between)에 존재했고 활동영역을 구축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이 안에 조선인의 사회가 존재했고 사회면은 '식민지 사회'의 사실들을 재현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 개념은 구한말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 소개되었으나 사회보다는 사적 소유권을 가진 개인을 더 중시하는 편이었다(박주원, 2005).²²⁾ 1900년대 특히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기에 사회 개념은 일정한 담론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국가로부터 구분된 사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사회의 단결과 윤리를 강조하였다. 사회는 조직이나 단체, 관에 대비되는 민, 피지배층, 신분 및 계층의 하위범주를 가리키거나 크게는 조선이라는 정치체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사회의 범위는 국가의 범위와 일치되었다. 이 단계를 거쳐 1920년대 지식인들에 의해 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사회 개념이 본격 논의되었다(박명규, 2001). 19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의 담론을 주도한 지식인들의 지식은 대체로 1910년대 일본유학 및 체류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사회에 대한 논의도 일본유학생 그룹을 통해 1910년대 『매일신보』, 『學之光』, 『青春』 등을 통해 개진되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신칸트주의, 신낭만주의를 공부했고 구관습 타파, 자강론, 실력양성론, 신문명건설론, 인격/개인의 각성 등 1920년대 조선의 개조주의와 문화론의 근간을 이룬 서구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일본어 번역본이나 일본 지식인의 글을 통해 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에 기반한 결사체가 아니라 개인을 양육하고 영향을 미치

21) 편집부(1934.9). 총독부를 싸고도는 신문기자진, 『삼천리』, 제6권 제9호, 100~103쪽. 1920년대 일본유학생 사이에서 이론가로 명망 높던 최원순(동아일보), 제국대학출신으로 학구적 이론가였던 김준연(조선일보)이 초기 총독부출입기자였다. 1920년대 중반에 활약한 홍종인, 김을한, 김동진 등은 총독부기자단이 약화된 시기에 해당한다.

22) 박주원의 분석에 따르면 『독립신문』의 1896~1899년간 발행분에서 사회 개념은 개인들의 사적인 교류와 경쟁이 벌어지는 장소, 즉 공간개념으로 논의되었으나 총 19회 등장하는 데 반해 국가와 나라 개념은 4천여 건이 넘는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는 사회, 즉 개인 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상정했고 이 기조 위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각을 중시했다(박찬승, 2007, 183~188쪽). 개인을 규정하고 구속하는 외부 요인들을 부정하는 자유가 아닌 개인을 초월하는 더 우월하고 합리적인 사회 전체, 민족, 집단, 국가 같은 전체의 가치를 긍정하고 인격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인격 발전으로 규정한 일본 지성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Siniawer, 2011). 이들 일본유학생 집단은 동호회 기관지, 단행본, 강연과 연설회, 번역, 기행문이나 보고문 등의 글쓰기를 통해 현실 문제를 비판, 분석, 해석하는 일을 도맡았고 정치사회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구현한 사회비평과 사회평론 형태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현실의 현상들을 관찰, 평가하는 사회평론 장르를 『매일신보』 등을 통해 구성해 간 것이다(김현주, 2008, 14~19쪽).

이 시기 사회비평 글쓰기를 주도한 이광수의 논의를 보면 1910년대 잡지의 사회비평과 1920년대 신문 사회면의 내적 연관성을 간파할 수 있다. 1910년대 중반 대구청년들의 권총강도 사건을 계기로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기고한 “대구에서”²³⁾는 치안과 도덕의 관점에서 조선인사회를 무질서와 문란한 사회로 재현하는 『매일신보』의 관점을 답습하지 않는다. 대신 명예심의 불만족, 할 일 없는 것, 교육의 미비와 사회의 타락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청년들의 범죄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므로 청년들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는 사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조선청년들의 심리상태-심리적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심리를 만드는 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법이다(김현주, 2010). 표층의 행위/사건보다 심층의 심리와 원인 규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개인의 인격-정신-도덕을 규정하는 사회-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 대한 관점과 시선은 1920년대 지식인들이 식민지의 사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시선으로 안착했다. 이광수가 하나의 장르적 전형을 창안했다기보다 개인보다 사회의 규정력을 강조했던 당대의 사회관도 그러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식민자의 입장에서도 표층의 사건/현상/행위 보다 심층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들의 원인인 식민지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에 방점을 두는 논법이 자연스레 생성된 것이다.

23) 1916년 9월 4일 대구에서 두 명의 청년이 한 자산가의 집에 침입, 도둑질을 하다가 머슴에게 육혈포를 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9월 내내 범인들 및 범인을 은닉한 협조자들에 대한 추적, 체포과정이 상세히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당국이 주시하던 대구협성학교 교원도 포함되었고 권총 6자루와 탄약 수십 발이 발각되었는데 이광수는 9월 22일자 글에서 범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자들로 ‘대구친목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청년의 향상 진보를 도모하던 자들이라고 밝혔다(김현주, 2010, 235~236 참조).

3. 사회면의 구성

한국의 1920년대 신문 사회면의 원형은 개화기 신문의 잡보(雜報)라고 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1904.7.18~1910.8.28)의 잡보 면을 보면 76% 정도가 사실 보도이고 그 전시기 『독립신문』(1896.4.7~1899.12.4)의 잡보 보다 기사의 정부의존도는 높아졌지만(약 25%) 사회문제가 14%를 차지하고 그 외 유명인사 동정, 관의 비리, 범죄 및 재판, 외국인, 정치문제, 사고 및 흥밋거리, 계몽, 선정과 미담, 외국 소식 등을 다루었다. 기사의 행위자로는 지식인 및 일반인 같은 비정부관료가 40% 남짓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관료와 왕실관계자가 차지했다(채백, 2004). 식민시기 사회면에서 다른 기사들과 다르지 않은 구성이라는 점에서 잡보는 사회면의 원형이었다.²⁴⁾ 편집국 조직에서 사회부, 편집체제에서 사회면이 고정 배치된 것은 1910년대이다. 1912년 『대한매일신보』가 지면을 개편하면서 1면과 2면에 정치와 경제를 배치하고 이를 경파(硬派)기사라고 하여 국한문혼용체로, 3면의 사회면과 4면의 문화면은 연파기사로 분류하여 한글 전용으로 제작하였고 이 체제가 1920년 민간신문에 그대로 답습되었다(정진석, 2005, 94쪽). 사회면을 정치, 경제보다 낮은 위상의 연파기사로 분류하고 3면에 배치하는 관행이 안착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면을 3면에 배치하고 연파기사로 취급하는 일본식 관행은 식민시기 신문사나 독자 모두 정치, 경제보다 중시했던 사회면의 실제 위상과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3면-사회면체제를 조선인 기자들은 처지가 다른 일본의 편집체제를 모방한 데서 비롯하는 기형적 체제라고 자조하였다. 초기 일본신문은 정치기사 위주였고 사회면은 등한시해서 3면에 배치했는데 이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사회면의 성격을 연파로 규정하는 관습 자체가 식민지 기자들에게 오히려 유용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사회부기자들의 모임인 철필구락부의 기관지 『鐵筆』(1930.8월호)을 보면 '신문 사회부는 연파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신문의 사회(면)는 때로 외국신문의 정치부역(政治部役)을 대행하는 일이 많고 조선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보도할 수 없는 "때리게이트"한 내용도 없지 않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은 식민지 신

24) 東西各國新聞 總觀(1932.1.25). 『동아일보』, 3: 이 기사는 세계각국의 유명 신문들을 보도본위 신문과 주관본위 신문으로 나눠 개략,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의 도쿄아사히(東京朝日)가 사실이나 잡보에서 명쾌한 지도정신이 있어 최고 수준에 이른 신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잡보는 정치면, 사회면에서 社會說 이상의 통쾌미를 보여 주며 지면에 일종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하고 지식적, 이지적이어서 정치적으로 애독할만한 최고정도의 신문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선 1930년대 초까지도 잡보가 정치와 사회를 포괄하는 사회면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25) 대담, 신문경영·편집자담회(1932.7). 『동광』, 제35호, 43쪽.

문 사회면의 중층성을 시사한다.²⁶⁾ 연파기사라는 규정 안에서 사회보도는 모호하게 정치를 내포하거나 델리킷한 여운을 발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총독부와 신문사-기자 간에 '시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재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²⁷⁾ 그리고 이 목계 하에 총독부출입기자가 정치부가 아닌 사회부에 배치되는 편집국 체제가 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사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편집국 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927년 4월 『동아일보』가 소개한 사회부 편제를 보면 사회부가 취재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사회부는 '일반사회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건은 물론 시정잡사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취급했다. '시시각각으로 생기고 나타나는 사실과 현상을 총찰하는 까닭에 활동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채록하는 재료가 비상하게 복잡하여 기자수도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사회부 기자는 내근, 외근, 유격의 3반으로²⁸⁾ 구분되었고 여기에 11계의 업무영역을 두었다. 이 중 외근기자의 취재영역은 경찰급(及)군사계, 사법급 형무계, 체신급교통계, 산업급시장계, 종교급학사(學事)계, 운동급경기계, 음악급연예계, 단체급집합계, 관공서계의 9계와 편집계, 내외통신정리계가 있었다. 고등경찰과 군사경찰에서 민사쟁송, 형사공판, 재판소, 형무소, 법조계, 우편전신, 철도와 해운, 일반산업 및 시장과 물가현황, 교육기관과 종교 및 학생단체, 운동경기, 음악과 무도회 등 연예일반, 사상 및 직업단체, 관공서와 일반 행정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취재했다.²⁹⁾ 사회부가 담당한 기사 영역과 출입처는 1930년대도 큰 변화가 없다. 1932년 14개의 출입처별 기자단 구성을 보면 1920년대 후반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기자단은 총독부출입기자단인 북악구락부를 필두로 경기부(京畿府), 창덕궁, 경성부, 경제, 철도, 체신국 기자단이 있지만 가장 중시된 출입처는 역시 각급 및 지역별 경찰서로 5개 경찰기자단이 활동하였다.³⁰⁾

26) 편집계(1930.8). 신문사와 그 조직, 『철필』, 15쪽.

27) 1931년 잡지 『혜성』(개벽사)은 각 신문 사회부 기자들을 명월관에 초빙하여 즉석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경찰서에서 전화로 집회를 할 수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해 해산시키겠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에 개벽사는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시사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계출계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 다음 날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기자들은 시사문제를 말할 수 없으므로 아예 누워서 대답하자는 발의를 하여 좌담회를 와담회로 명명하고 취재와 편집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나 저널리즘의 문제를 논하였다. 참석한 사회부 기자들은 『매일신보』의 김을한, 유도순, 『동아일보』의 이길용, 『조선일보』의 홍종인 등이다(김을한 외(1931.8), 각 신문 사회부기자 대담會, 『혜성』, 84~92쪽 참조).

28) 유격(遊擊)기자는 돌발사건과 특종 탐방(探訪)을 전담하는 기자로 치밀하고 기민한 정보원, 통신망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기자들이 주로 맡는다.

29) 3반에 11계, 4면에 8방(1927.4.30). 『동아일보』, 3.

30) 漢陽學人(1932). 신문기자단 연파레트, 『삼천리』, 제17호, 72~75쪽.: 경성 내 14개 기자단의 특징과 주업무

1924~1930.8월까지 『조선일보』 사회부기자로 활약하다가 『매일신보』로 이직해서도 사회부기자로 총독부와 철도국을 담당했던 김을한(1906-1992)에 의하면 1930년 현재 사회부기자는 '사회적 사실을 보도 비판하는' 기자였고, 일본통신 전보만 번역하는 정치부의 한계 때문에 "조선의 활무대(活舞臺)는 오직 사회면"이라는 자의식을 가졌으며 그만큼 사회부가 인기와 활기를 독점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사회면은 관청 및 경찰 발표를 기사화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취재가 필요했고 자연 사회면은 외근기자가 중심이었다.³¹⁾ 외근기자는 관청과 경찰을 상대로 타 신문사 사회부기자들과 취재경쟁을 벌였고 특종경쟁도 치열했다. 돌발사건의 경우 호외 제작도 사회부를 중심으로 전 신문사 직원이 동원되는 형태로 대응하였다. 1920년대 초반에 신문사 간 호외경쟁과 특종경쟁은 사회부 기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주력하는 자존심 경쟁이기도 했다.³²⁾ 또 그만큼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예산도 다른 부에 비해 우선시 되었다. 사회부 기자는 '관공서, 은행, 사회, 학교, 개인집, 공원, 극장거리, 뒷골목, 술집, 기생집, 갈보집, 싸움터, 불난 곳(화재), 물 난 곳(홍수) 등 안가고 안보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부잣집 머슴보다 더 고행하는데 원고가 다 된 후에는 삭제, 압수, 금지, 명예훼손, 재판, 징역 등의 일을 당한다'는 자조도 없지 않았다.³³⁾ 심지어 '아무 가치도 실제적 의의도 없는 사회면 기사 하나를 위해 몇 백 원의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학예면의 문예기사 원고료는 몇 십 원도 쓰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될 정도였다.³⁴⁾

그러나 사회면의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시국사건과 치안사건으로 검거된

를 개략하면 이렇다. 북악구락부(총독부출입기자단)는 신문사의 위신을 대표하는 중견기자들로 구성되고 경기구락부(京畿府)는 주로 경찰부에 집중한다, 광화문구락부(체신국)는 비행기 입출입 외엔 기사감이 없다, 이화구락부(창덕궁)는 고종인산 때 이후로는 요사구라(夜櫻)보도가 유일한 임무이다. 사법기자단(경성지방법원), 府政기자단(경성부)는 경성부의 시설 외 정부통계 등이 중요하고 경제기자단은 금융관계 단체가 주 취재원이다. 그 외 철도기자단(총독부 철도국), 운동기자단, 종로서출입기자단(조선의 경시청에 해당하는 출입처), 본정서출입기자단(조선인 사건이 드물다), 서대문서출입기자단, 동대문서출입기자단, 용산서출입기자단(여름 수해나 한강 역사사고 등이 주요 사건)이 있다.

31) 김을한(1930.11). 뒤로 본 세상 사회의 이면폭로-제1회 신문계의 내막, 『별건곤』 제34호, 126~131쪽. 이 편집체제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조선일보』의 사레인 지 현 직장인 『매일신보』를 염두에 둔 것인 지 정확하지 않다. 글머리에서 조선신문계의 이면(裏面)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문사의 평균적인 혹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이 글에서 정치부는 전보번역기자 1인, 편집을 맡는 정치부장, 논설반 기자 2-3명으로 구성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매일신보』일 가능성이 높다.

32) 유광렬·유지영·박필양·마호(1927.1), 각신문사회부기자의 고심담-날마다 새로나는 소식은 엇더케 모호나, 『별건곤』, 제3호, 24~34쪽.

33) 원고지(필명), (1926.12). 인쇄물이 독자의 손에 들기까지 잡지나 신문이나, 『별건곤』, 제2호, 95쪽.

34) 김안서(1931.12.15). 신미년 詩壇, 그 부진과 新詩人. 『동아일보』, 4.

인사들의 공판, 경찰서에서 공표하는 사건이나 범죄, 사건 및 사고 기사였다. 즉 사회부 기자의 가장 중요한 출입처는 총독부경무국, 경성 내 종로 및 본정 등의 지역별 관할경찰서, 공판이 벌어지는 법원이었다. 사회면이 거의 천편일률로 흐른다는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기사재료를 얻을 만한 단체나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므로 단시일에 적은 노력으로 많은 기사를 얻을 수 있는 경찰서나 재판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³⁵⁾ 잡지 『개벽』이 “우리 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1921.5)를 알기 위해 1921년 3월 한 달간 『동아일보』 3면 사회면에서 보도된 기사 689건을 주제 분류한 것을 보면 보안관련 사건(군자금사건, 경계취체(警戒取締)사건, 검거자에 대한 공판사건, 교전횡수)이 193건으로 28%에 이른다.³⁶⁾ 당시 신문 사회면에 대해 언급한, 인상기적 소견들도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세사건 이후 ‘사회면에 기재되는’ 사건들인 “경찰관의 대활동, 폭발탄 육혈포범인의 대검거 등”의 사건으로 사회의 불안한 진상(真相)을 체감했고³⁷⁾ 신문사 편집국장들도 사회면은 ‘항상 검거, 징역, 자살, 기근 등이어서 참혹해서 볼 수가 없다고 토로할 정도였다.³⁸⁾ 지식인 독자의 눈에 ‘신문지 사회면은 사기, 횡령절도, 강도, 강간, 도박, 살인, 방화, 협박, 유인(誘引), 불령(不逞), 독직(瀆職) 이러한 글자만이 차있’는 것이었다.³⁹⁾ ‘항상 시대적 불우와 제도 결함의 일면상인 암흑가를 향하여 범죄장만 탐색 취재하고 그것을 기사화하기까지 실로 적지 않은 고심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신문의 한계, 즉 정치와 경제 방면에 필봉을 휘두를 수도 없고 언론자유도 없지만 식민지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압박하는 제국의 기관들인 경찰소, 재판소, 경찰국이 주요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35) 대담, 신문경영·편집좌담회(1932.7), 『동광』, 제35호, 44~45쪽.

36) 김기전(1921.5). 우리 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 『개벽』 제11호, 73-74쪽. :그 외 學事 및 기타 문화시설에 관한 것이 44건, 전차자동차 기타 車馬의 탈선충돌에 관한 것이 28건, 火事 32건, 詐欺 26건, 절도 24건, 강도 19건, 교회 11건, 일선인 軋轢이 5건, 개인 私鬪가 5건, 신구사상의 충돌이 9건, 일본관광 6건, 기타 잡보 287건이 다루어 졌다.

37) 중대한 위기-관민에 대한 희망(1920.8.25). 『동아일보』, 사설

38) 대담, 신문경영·편집좌담회(1932.7). 『동광』, 제35호, 43쪽.

39) 이지광(1933.9.7). 가정은 제일 낙원이다, 『동아일보』, 3.

40) 박윤석(1931.10). 천편일률의 비애와 고민상의 병적 사회의 뉴스, 『삼천리』, 제3권 10호, 71~72쪽.

4. 식민지 사회의 '사회적 사실' 과 해독의 규약(規約)

3·1운동 이후 식민지의 문화주의 및 개조주의-실력양성론 담론을 가로지른 중심 개념들은 자유평등, 정의와 인도(人道), 민주주의, 만국공의(萬國公義), 세계평화 및 동양평화, 근대문명, 계몽주의 같은 인류적 보편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 관념적 이상들이었고 이것들은 서구의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장인성, 2009). 『동아일보』는 정의와 평화를 창간사에서도 강조했고 세계 개조의 대세에 부응하여 '정치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⁴¹⁾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1921년 11월 기자들의 친목회인 무명회(無名會) 발기문에 정의 개념이 반복 강조된 것은 자연스럽다. '여론의 권위로써 정의를 지지코자' 나섰다고 천명하면서 "정의가 행하는 사회에서 안녕이 있고 문화가 약진하며 따라서 정치는 인도를 실행하고 산업의 이익은 균분된다'거나 '황포한 군국주의 하에서 정의는 유린되었고 탐람한 자본주의하에서 정의가 몰하였는데 정(正)을 설하고 의(義)를 논하는 설(舌)과 필(筆)을 들어 엄숙한 권위가 유(有)한 여론을 창조하고 신문화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⁴²⁾ 그리하여 사회의 발달은 현대적인 사회적 의식과 활동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생활을 사회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적으로 각성할 것을 요구하면서⁴³⁾ 사실을 보도할 때 필요한 선택의 기준도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사회'를 반복하는 문맥 속에 식민지 신문 사회면의 위상과 의미를 중층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1920년대 중반 들어 초기의 '정치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식은 다소 둔화되었고 대신 '대중의 생활적 형편과 의식'을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불쌍한 민족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각지(立脚地)를 설정한다. 1925년 4월 『동아일보』 사설 '신문기자의 입각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는 사회에 현출되는 사물을 그대로 지면에 표시하는 무자아무인격(無自我無人格)한 기계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취사선택하고 비판하는 민안(敏眼)과 용단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생활의식을 체득하고 그에 효능을 주는 한도에서 존립가치와 이유가 있으므로 대중의 진실한 생활의식과 생활형편에 입각하지 않으면

41)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4. (1920.4.7.). 『동아일보』, 사설; 主旨를 천명하노라. (1920.4.1.). 『동아일보』, 사설.

42) 기자단무명회의 탄생(1921.11.26). 『동아일보』, 3. :무명회는 기자 11명의 친목회로 발족되었지만 목적이 불분명하여 활동이 미미하다가 1924년 3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 재창립 수준의 논의를 거친 후 일본인기자, 『매일신보』 기자를 배제하는 등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다(정진석, 1982, 155~159쪽).

43) 근래 조선사회의 일현상(1922.8.11). 『동아일보』, 3.

자멸의 길'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자는 여전히 '판단한 신념에 대해서는 사(死)를 각오하는 남아의 의분과 장쾌(壯快)가 있어야 하며 신념이 정의에 있고 진퇴가 민족적 부활에 있으니 초로 같은 일신의 생사에 있'지 않다면서 '대중생활의식의 봉화는 파지자(把持者)의 선혈활약과 육괴(肉塊)의 맹진으로 기세를 더하고... 가장 불상한 민족의 생활에 구우일모의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압박과 폭력을 견디고 자중하며 정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정치적 정의'에서 식민지 대중의 사회적 생활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절도 변절도 아니다. 선택기준으로서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사회주의의 사회 개념, 즉 경제 및 물질생활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가족, 봉우(朋友), 사회, 국가, 세계의 사회적 조직, 윤리, 습관, 풍속 및 정치 경제제도 등을 의미하면서 정신영역 및 물질생활영역과 상호 연관된 채 한 민족의 생활방식으로서 문화를 구성한다는 사유가 있었고⁴⁵⁾ 『동아일보』, 『개벽』 등의 초기 문화주의와 문화운동에는 경제적 실력양성론, 경제적 사회주의가 병존해 있었다. 물질, 민족, 사회 관념들이 문화개념과 혼용되어 있었던 것이다(최수일, 2008, 420~454쪽). 1923년 이후 보다 사회주의로 경도되면서 물질적 및 경제적 생활 방면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 창간 9개월 만에 3개월간의 발행정지를 당한 『동아일보』의 사례에서 보듯 신문사와 신문사 내 사회주의 기자, 민족주의 논조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정치적 함의를 약화시키고 대신 식민지 사회와 대중생활의 실상을 표상하는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변화는 앞에서 논의한 무관의 제왕 다운 중량감과 위세로 총독정치에 접근했던 1세대 총독부출입기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다소 연화(軟化)된 '부잣집 머슴' 처럼 어디든 취재 하러 다니는 2세대 사회부기자들로 세대 교체되는 변화와 맞물려 있다. 주장을 통해 문명(文明)을 날린 초기 기자의 시대는 지나고 신속, 상세, 완전보도를 추구하는 문명은 높지 않은 보도기자들이 다수를 점하는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⁴⁶⁾

그러나 '사회적'이라는 신문기사의 표준은 독자와 공유하고 실천할 때 온전히 소기의 목적-사회적인 것의 정치적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1921.12.29)의 "동사아사(凍死餓死) 비참한 사회적 현상-오인은 독자에게 문(問)하고자 하노라"는 주목할

44) 신문기자의 立脚地(1925.4.17). 『동아일보』, 사설.

45) 이동곡(1922.11). 동서의 문화를 비판하여우리의 문화운동을 논함. 『개벽』, 제19호, 33쪽.

46) 千斗上(1930.9). 사회조직의 변천과 신문, 『철필』, 24~27쪽.; 이태우(1937.6). 현역신문기자군상, 『백광』, 42~51쪽; 이선근(1930.9). 최근 조선의 썬리리즘 측면관, 『철필』, 19~20쪽.

만한 텍스트이다. 필자의 표현대로 독자에 대한 '신문학(新聞學) 강의', 즉 독자의 사회면을 보는 관점을 계몽·교육하는 성격의 글인 때문이다. “제군은 3면기사를 독(讀) 할 시에 매양 여하한 감상을 포(抱)하는가”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전(全) 사회생활을 전 인생의 상(相)을 엿더한 사실에 구체화하며 그 사실로써 사회생활을 포착하”는 것이 독자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인 3면 읽기라고 명시한다. 시범사례가 된 사회면 기사는 전날(昨日) 보도한 아편중독자의 「광화문 루상(樓上) 동사체(凍死體)」 사건이다.⁴⁷⁾ 이 사건은 첫째 법률의 무시, 둘째 도덕률의 무시, 셋째 이를 위한 ‘모든 흥계와 간사’의 측면들이 있으나 아편중독자의 부도덕과 죄악만 따지거나 한낱 ‘이야기거리’로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그보다는 ‘재산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산 있는 자들(아편밀매와 연관된 자산가들·필자주)의 사욕충족의 간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 사회가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이를 정의로 간주하면서 이의 피해자를 죄악시키는 것은 사회제도의 모순이고 당착이라면서 사회생활의 명암 양면을 표시하는 한편 사회제도의 모순과 생활내면의 당착을 표시하고 있는 기사의 의미를 깊이 해독할 것을 요구했다. 독자는 “사회생활의 개개 단편이 보도될 시에 마비된 양심을 고동(鼓動)하며 사회생활에 대하여 일층 예민한 관찰력을 지(持)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사회면은 현상으로 드러난 사실을 표시하지만 정작 그 사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발생시킨 체제와 구조의 부조리, 모순, 폭력성, 부자유, 부정의(不正義)이므로 독자가 이를 간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신문과 조선인 독자가 3면 기사를 부호화하고 해독하는 규약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회면이 조선 사회의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평가에 기반한 사회면의 현실 구성력이 작동한다. 이 규약 하에서 범죄의 추이와 발생빈도로 사회의 형편을 가늠한 ‘범죄에 나타난 사회상’류의 기사들이 생성되었고 일관되게 식민지민의 행위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식민체제의 법제, 그리고 절도나 강도, 사기, 폭력 등의 범죄에 빠지게 하는 식민체제의 문제로 접근하였다.⁴⁸⁾ 그리고 당연하지만 신문 사설은 자주 ‘사회면에 나타난 조선의 사회상’을 논제로 삼았고 식민통치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실적 논거로 활용하곤 했다.

47) 自殺! 餓死! 비참한 사회상的一面(1927.5.24). 『동아일보』, 3.: 2단 18행 크기의 기사지만 제목은 전체 기사면적의 1/3이 넘는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기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논평은 배제되어 있다.

48) 범죄통계로 본 사회상(1929.10.7). 『동아일보』, 3.; 범죄에 나타난 사회상(1923.5.16). 『동아일보』, 3.; 범죄에 나타난 사회상(1937. 8.3). 『동아일보』, 3.

‘매일의 신문지의 사회면상에 나타나는 큰 활자의 대부분은 검사국처벌, 투신(投身), 자살, 충화(衝火), 폭행, 고문, 소동, 분개 등 문구이니 이는 사회의 실제상(實際相)을 활자로써 축소(縮圖)한 것이다… 그러한 모든 활자는 인간의 불상(不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의 모독(冒瀆)을 표시하는 것이며 조선 및 조선인이 당하는 금일의 불행, 불우한 운명을 사실로써 증명하는 것이니… 이 시대악(時代惡)의 발상자(發祥者)가 금력의 횡포성, 강권의 잔학, 경제적 고통, 부자유의 뇌민(腦悶) 임을 말하는 것이 된다.⁴⁹⁾

조선의 청년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별문제고 ‘그 사실을 표면에서 법적 안식(眼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산출시키는 사회의 현상(現狀)과 그 사회에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정책 등을 여실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력이 향상된 조선 청년들의 사상적 동향은 실생활과 생활의식에 대한 간취(看取)에서 비롯한 것임을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⁵⁰⁾

5. 사회면의 식민지적 樣式化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신문계의 변화 속에서도 사회면 기사에 부여된 애초의 의미는 최소한 1930년대 초, 즉 일제가 전시체제를 가동하기 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신문 사회면에 실린 개개의 단편적 사실과 구체적 사건이 어떻게 식민지배의 진실을 함축하거나 대중이 그 것을 간파하도록 촉발할 수 있는 가하는 것일 것이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은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 의식이기 때문에 신문 사회면의 기사 작법은 곧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의식화를 위한 작법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은어와 반어 등을 구사하며 우회적으로 사건을 재현하고, 표층의 사건이나 사실 자체보다는 심층의 구조적 원인에 비중을 두며, 나타난 행위 자체 보다는 행위를 초래한 심리적 동기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고, 해당 사건/사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고,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닌 하나의 서사를 가진 이야기로 재구성될 때, 행동 보다는 감정과 태도의 묘사에 가치를 부여할 때 내용 면에서 풍부해 지고 양식적으로 완성된다. 식민지에서는 사회적 사실을 정치화하는 이런 기사작법(記事作法)이 생

49) 腦悶의 사회(1926.7.12). 『동아일보』, 사설.

50) 우려되는 사회상(1927.11.18). 『동아일보』, 사설.

성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1) 사실 이상의 심리적 사실

하나의 사건이 식민지배의 모순과 당착을 표상하고 또 그렇게 해독되게 하기 위한 사회면의 사건취재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심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구체적 사실을 둘러싼 연관 사실들을 한꺼번에 드러나게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의 흐름이나 과정을 연대기로 구성하면서 관련된 사항(인물, 사건, 지역 등)들이 전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사회면에 대한 논의를 보면 '심리' 개념이 자주 언급된다. 심리적 사실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인 취재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심리는 대체로 사건의 이면이나 배후원인을 가리키지만 행위자의 동기나 욕망, 욕구, 필요 등 심리적 요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심리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도 근본적인 것도 아니다. 심리는 그보다 더 선행하는 결정적 요인인 구조, 체제, 사회문제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에 가깝다. 즉 표면에 드러난 사건을 사회체제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개념적 교두보로 심리 요인을 배치하는 논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1925년 일본인 역무차장이 조선 여인을 차장실에 감금하고 강간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차장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이 기사는 '야비한 그네의 우월감이 만행을 착수하게 된' 한 원인이라면서 말미에 승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총독부 정책을 거론하였다.⁵¹⁾

1920년 민간지 창간 즈음의 사회면에서는 사건행위자의 심리에 방점을 두었음을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간 2개월 만에 동아일보에 실린 논고 "제3면과 기자"(1920.6.1.)는 사회면에 대한 일부 지식인 등의 비판적 시선을 논박하고 항변하는 장문의 글이다.⁵²⁾ 치정, 자살, 범죄, 강도, 사기 등의 사건들이 매일 기사화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된 지식인들 사이에 3면 사회면의 존재의미에 대한 시비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이 글은 사회면의 성격과 역할, 기사종류와 범위, 세간의 비평과 오해를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지 창간 초기 사회면에 대한 동아일보의 편집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에 길지만 인용한다. 기사는 우선 '신문 3면은 인생의 진상(眞相)을 표현하는 일부분의 인정사(人情史)이고 세간의 실정(實情)을 관통하는 애사(哀史)이며 사실이 명백한 정사(正史)이며 또 야사(野史), 이성과 감정을 토설하는 일종의 문단(文壇)'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회면을 '단지 일반하등생활자의 독물(讀物)로나 사(思)하'는 지식계급, 특히 종교가

51) 차장의 강간사건(1925.4.19). 『동아일보』, 3.

52) 萬觀亨(1920.6.1.). 제3면과 기자. 『동아일보』, 3.

들을 이렇게 논박한다.⁵³⁾

금일 3면기사가 대개는 정사, 간음, 강도절도쟁투, 사기 불화 등의 제반 불의 부덕한 기사가 대다수를 점령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인 지식계급의 대다수는 3면 기사를 일반으로 배척하고 염오(厭惡)해야... 필자는 그네들에게 일문(一問)하고자 하니... 정사 간음 등의 3면 기사가 사회 반면(半面)의 진상이라면 3면 기사를 배척하려는 그대들은 귀와 눈을 막고 한낱 염세가 뒀을 자백하지 않겠는가?... 鏡面에 비추이는 그림자는 실체의 反像이 아닌가? 사회 암흑면을 관찰하여 이를 照破하려는 각오를 해야하지 않는가... 의사가 환자의병의 원인을 상세히 진찰한 후에 약을 투약하는 법이다... 즉 情死는 何故로 기인함인지... 간음은, 절도와 강도는 여하한 사정 하에 양성되는 것인가 등 기타 제반 부덕의 기원을 통찰하여 제방책을 강구함이 종교가의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건의 중추에 動하는 인심의 秘機를 통찰하고 인정의 심리현상을 다루는 ... 사회면은 그 사회에 완전한 日課와 日誌가 되는 것이다... 암흑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광명(선행미담)은 무관심하므로 신문의 商略으로 그리됨은 이해할지나... 그렇더라도 3면은 둘도 없는 好記錄이다.

일탈과 범법 행위 이전에 이들의 비밀스러운 심리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배양하는 사회의 연쇄, 즉 행위-심리-체제의 논리적 연쇄로 사회면 기사를 바라보아야 하며 사회면의 궁극은 부도덕을 양산하는 사회의 개선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비록 신문의 상업적 고려가 암흑면을 부각시키는 한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사회면이 풍속습관, 인생의 갈등, 인사(人事)의 진상, 윤리도덕, 정치경제의 여파, 종교 및 문학의 추세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역사의 자료'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이렇게 사회면을 1,2면의 정치, 경제와는 다른 층위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역사적 기록(日誌)의 장으로 규정하는 입각지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사건행위자의 심리 보다 사건의 심리, 즉 배후의 사실 파악에 주안을 두는 관점은 1930년 전후의 글들에서 보인다. '심리적 사실'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는 1930년 1월 초부터 오기영이 일본어판 「신문의 話」를 번역 발췌하여 연재한 「新聞小考」에서 학술적으로는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⁵⁴⁾ 이에 의하면 심리적 사실은 눈에 띄게 노출된 유형

53) 이 기사는 사회면을 비판하는 주요 집단으로 종교가를 특정했다. 1920년대 천도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청년회 등 각종 문화운동이 전개되고 신문, 잡지들이 운영되는 등 종교단체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컸고 여기서 사회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有形)사실에 반대되는 무형(無形)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면에 숨은 사실, 추리판단으로 사실과 의견을 교차해서 쓰는 추측기사, 이보다 더 진전하여 테드라인 때문에 사건의 종국(終局)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쓰는 예상기사 등이 심리적 사실에 기반하여 쓰여지는 기사 유형이라고 개략하였다. 『동아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한 김석송(金石松, 1900~?)도 심리적 사실을 오기영과 유사하게 풀이하면서 특종취재와 연관짓기도 하는데 일본 책을 번역한 오기영에 비해 식민지적 상황에서 심리적 사실이 취재와 보도 양면에서 갖는 의미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조선 같이 언론범위도 좁고 보도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심리적 사실을 포착해도 사실대로 보도할 수 없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사실을 포착해야 특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돌발적으로 이미 발생해버린 우발적 사실과 달리 심리적 사실은 '아직 사건이 구체적으로 세간에 노출되기 전에 그 심리동향을 포착하여 예리한 필봉으로 보도, 비판, 혹은 해부하는 것'이다. 오동익 하나로 가을이 오는 것을 짐작하는 민감(敏感)과 확고한 자신감, 육감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일종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고, 조선에서는 하나의 우발적 사실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연쇄관계를 찾아서 사건 중심의 망라주의(網羅主義)를 쓰는 것이 특종을 얻는 가장 적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⁵⁴⁾

이 입각지에서 사회부 기자가 상식, 사회과학, 자연과학에도 소양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식으로 사변(事變)의 표면을 세밀히 관찰하는 것 뿐 아니라 이면의 영향을 주도(周到)하게 알아 채고 얼굴 근육 하나의 움직임도 포착할 만큼 예민한 신경을 가진 한편 평소에 외신도 챙겨 읽고 부단히 자료를 조사해 두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이다.⁵⁵⁾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자라면 이를 포착해서 자신이 가진 통신망, 인맥, 정보원, 소식통,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건을 남보다 빨리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이고 취재영역과 정보접근이 지극히 제한된 식민지 기자들에게 심리적 사실은 말 그대로 주관적 사실, 심중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

시국 및 치안 사건은 물론 다른 사회적 사건들도 경찰서나 경무국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서로 전체 사건의 전모를 예단'하고 추측하게 되지만 엄중한 검열 체제하에서 심증이나 심리적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든

54) 오기영(1930.1.15). 新聞小考 6: 신문의話, 『동아일보』, 3.: 오기영의 연재는 1930.1.7~23일까지 7회인데 뉴스개념, 사실개념, 오보, 목격, 소문, 언론자유, 여론형성 등을 다루었다.

55) 김석송(1930.7). 특종기사란 무엇인가?-독점기사에 대하여, 『철필』, 17~19쪽.

56) 유광열(1930.7). 白凡에 용의주도하라, 『철필』, 13~14쪽.

것을 비밀주의로 하는 정치 하에서” 오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경찰당국이 다수 중요 인물을 검거하고 소위 엄비(嚴秘)의 주인(朱印)을 찍고 발표치 않을 때 신문기자가 대담한 용기와 모험으로 조사에 고심참담한 경로를 거쳐 독자에게 제공하는 기사에 오보가 전연 없다면 이는 차라리 특필할 기적이라는 오보관(誤報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⁵⁷⁾ 정보 제한과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라도 신문의 오보는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기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오히려 묵인하는 분위기였다.⁵⁸⁾

식민지 현실에서 하나의 사건이나 사실이 연관된 사실들과 함께 부감되도록 취재하고 정보를 모으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시대일보』, 『중의일보』, 『조선일보』에서 오래 동안 사회부기자로 재직한 홍종인(1903-1998)의 회고담은 사회부 기자의 주 출입처인 재판소와 경찰서에서 그것이 일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시선으로 보면 공개 재판 취재 보도는 하나의 공판사건 기사일 수 있지만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범죄사실이 법정에서 검사의 기소이유와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1930년 3월 여운형의 예심종결(豫審終決: 원심판결) 결정문을 경쟁사보다 먼저 취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탐정처럼 활약했고 신문사 재정이 열악했음에도 굳이 호의 제작까지 밀어 붙인 의도를 이렇게 토로했다.

‘여운형이라는 큰 인물을 통해 우리가 이때까지 공개 못 해 본 중대 사실을 만 천하 독자에게 알리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즉 기미운동 이후 해내해외에서 생기는 독립운동의 種種相은 단편적으로 만히 전하여 온 바도 있으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00운동의 첫 계획으로부터 假政府가 성립되고, 또 창조파와 개조파의 알력이 생기기까지 조선공산당의 조직, 전 露領 이동휘파의 활동이며 莫斯科(모스크바)의 遠東약소민족대회, 조선공산당의 제3 국제당과의 연락과정 등이 체제있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런 큰 무대의 움직임을 여운형을 통해 넉넉히 말할 수 있었다.’⁵⁹⁾

검사의 기소에서 치안 사건 범죄자(독립운동가 등)들의 범죄행각, 즉 거사 내용, 현장 침입 경로와 방법, 관련 피의자들 및 조력자들, 피해자 및 피해규모, 압수한 총기나 화약 등 물품, 피의자들의 만남과 범죄모의 과정, 이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 조력자, 장소와 일시,

57) 오기영(1930.1.19). 신문소고 7, 『동아일보』, 3.

58) 이서구(1927. 12). 신문오보에 대한 사건-신문강연 제3석. 『별건곤』, 제10호, 62~65쪽.

59) 홍종인·김파백·박윤석(1931.10). 명탐정과 신문기자 경쟁기, 『삼천리』, 제3권 10호, 66~69쪽.

주요 활동 근거지 등이 제시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중국, 만주, 소련 등 해외의 독립운동 동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검거된 주요 인물들의 공판과정은 흥종인의 기대처럼 일시에 많은 사실을 접할 수 있는 '호외' 거리였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법치주의, 증거주의를 채택한 근대적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재판소, 경찰서가 식민지 신문 사회부의 가장 핵심적 출입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비참(Les Misérables) 敘辭

1924년 3월 18일 『동아일보』는 “사회면 기사”라는 제목 하에 전날인 3월 17일자 사회면에 실린 21건의 “엇더한 사실의 기록”인 기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면서 3단 크기 박스기사를 게재하였다. 21건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교육(3), 관권의 횡포와 정의의 부르짖음(2), 생활관계로 인한 비참한 사건(9), 살인강도 등 (7)으로 나누고는 이렇게 해석했다.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고 신문 사회면은 “사회적 직접현상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기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인이 얼마나 생활과 싸우는 중임을 짐작케 한다. 생활을 위해 싸우고, 죽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리오. 이런 비참한 기사가 적어지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했다.⁶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제3면과 기사”(1920.6.1) 논고의 연장이다. 그리고 이런 식민지 사회에서 신문기자는 ‘거대한 사회생활의 기구의 심장까지 돌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사회생활의 커다란 파탄 면과 요철 면에 서린 민중의 고뇌를 그대로 감수(感受)하고 피에 섞인 그 절규를 ‘하트’에 느끼면서 제6감에 따라 부단히 사회의 표면과 이면을 배회하는 존재라는 직업의식을 갖는다.’⁶¹⁾

식민지기 신문 사회면에서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기사의 표제들, 음울한 사회상(社會相), 뇌민(惱悶)의 사회상, 우려되는 사회상, 잔인한 사회상, 착란된 사회상, 참절한 사회상, 범죄에 나타난 사회상, 비참한 사회상, 한심한 사회상 등의 표현은 ‘은어와 반어’의 기법으로 총독정치의 ‘악행’(惡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코드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늘어 나는 자살자들을 담고 있는 사회면은⁶²⁾ ‘천편일률의 비애와 고민상의 병적 사회의 뉴스’로 가득 찼고⁶³⁾ “대부분이 너무 비참하고 암담하고 기막힌 것”이어서 기자들도 취재

60) 사회면기사(1924.3.18). 『동아일보』3: 생활관계로 인한 비참한 9건의 사건 중에는 파업, 술값 인상, 給水夫 陳情, 기갈로 인한 죽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 김기림(1930.7). 신문기자로서의 최초 인상-찌날리즘의 비애와 회열, 『철필』, 창간호, 47쪽.

62) 생에 대한 태도(1934.3.30). 『동아일보』, 사설

63) 박윤석(1931.10). 천편일률의 비애와 고민상의 병적 사회의 뉴스, 『삼천리』, 제3권 10호, 71~72쪽.

는 슬픈 일이 되고⁶⁴⁾ 독자에게도 ‘상감’(傷感)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감정이었다.⁶⁵⁾ 빈민굴, 폐죽음, 파멸해가는 농촌, 학생들의 동맹휴학, 염세자살, 끊이지 않는 검거라는 ‘비참한 현실’에 감정 이입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⁶⁶⁾

이처럼 사회면을 채운 ‘비참’(悲慘)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감상적인 용어였다. 앞에서 논한 사회면 기사를 읽을 때 이면의 원인과 심리적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기사의 행간과 의도를 간파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간파는 기사가 규정하는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지만 이때의 개입은 감정적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보원과 참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신문 기사에만 의존하는 경우 간파는 독자의 감정적 개입, 즉 동정과 연민, 공감을 통해 사회적 사실로 재구성된다. 사회면이 독자에게 요구한 것은 이 감정적 공감 혹은 동정(同情)이었다.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과 번역 작업을 식민지민의 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감정교육 텍스트로 볼 수 있다면 사회면의 비참 기사들도 그러하다. 이 때 능력으로서 감정은 동정의 능력이다. 동정은 연민, 공감에 그치지 않고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인식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 가치판단 능력을 포괄한 감정으로 장려되었다(김현주, 2004). 이광수가 미국 *Uncle Tom's Cabin*(1852, H. B. Stowe작)을 번역한 『검둥의 설움』(1913)은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단순화하고 독자의 감정이입을 추동하는 식으로 축소, 발취하여 시대에 대한 저항을 형상화하고 유도했다. 검둥이 노예 톰의 자유를 향한 수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그의 도덕성과 억압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형상화한 것이다(황정현, 2011).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문사회면에서 부감된 비참은 문학이 아닌 저널리즘 영역에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감정능력으로서 동정을 추동하기 위한 서사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동정능력이 비참한 상태의 동족을 부조하기 위한 모금과 기부로 행동화되는 1920년대 식민지 사회의 정경들은 동정-상호부조-모금으로 연결되는 민족공동체를 재확인하는 계기들이기도 하다(우수진, 2012).

이 동정과 공감의 감정능력이 신문 사회면에 그늘을 드리운 ‘비참’의 서사가 의도하는 정치성이다. 그래서 살인이나 강도, 절도 같은 범죄 또한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고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 없는 ‘해석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회면의 표층(表層)은 여러 사건들, 현상들, 사실들로 채워지지만 신문(기자)과 독자는 그 표

64) 김만형 외(1937.2). 평양기자좌담회, 『백광』, 84쪽.

65) 가을과 의지와 용기와 精力(1935.9.28). 『동아일보』, 사설.

66) 유광렬(1931.7). 신문기자에 대한 胡思亂想, 비판, 『철필』, 76~79쪽.

층 밑에 자리한 식민지 현실이라는 심층(深層)으로 내려가서 이를 부호화하고 읽고 해석하는 공통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리 보면 1930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보내 온 독자들의 후기 12개를 게재하고 이 기사에 『동아일보』가 붙인 다소 긴 제목, “一千萬衆의 心琴에 부딪친 조선 10년간 喜悲曲: 본보를 통하여 울고 웃은 만천하독자의 感想片片”은 함축적이다. 제목에서 말해 주듯 독자들의 글 중 다수에는 신문 기사를 보고 흘린 눈물과 슬픔의 기억이 많다. 남북유리(南北流離)하는 동포들을 보며 열루(熱淚)만 방타(滂沱)했고 달마다도 아니고 날마다 있었던 가슴이 터질 듯 슬픈 소식에 종이 찢어질 만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독자에서부터 소학생 아사(餓死)에 신문을 들고 체읍(涕泣)한 일, 지난 역사를 생각해 하는 사건을 보며 구감(舊感)에 신루(新淚)를 흘린 일, 슬픈 일이 많아서 다시 생각하니 말없이 마음은 아파오고 두 주먹은 힘껏 쥐어진다는 독자, 광주사건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가 기미년 이후 10년간 웃음보다 울음이 많았고 팔 불끈 거두고 주먹 쥐는 일이 많았다는 독자 그리고 연재소설을 읽으며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울던 일을 각기 기억에 남는 일로 회고하였다.⁶⁷⁾

신문 기사를 보며 눈물과 슬픔을 지나 중국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공유하였던 것이다. 동족이 직면한 사태와 사건에 대한 동정이 결국은 분노와 반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이 식민지 신문 사회면의 정치성을 작동시키는 근거였다. 사회면의 사건들은 식민지 사회의 환부(患部)들이었고 사회부 기사는 이 환부의 다양한 증상을 드러냄으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읽어내길 기대한 것이다. 사회면은 비참의 서사인 『레미제라블』처럼 식민통치의 모순과 결합, 폭력성과 반인간성을 발설하고 이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정치학을 수행한 것이다. 조선의 ‘지식계급·정치계급의 총집중소’로서 조선인의 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인 신문들에게서 정치는 드러낼 수 없는 진의(眞意)일 수밖에 없었다(박현호, 2011, 214~232쪽). 그리고 그 진의는 비참의 서사를 매개로 하여 감정적으로 작동하였다.

3) 감정적 현실을 구성하는 實事敍辭로서 뉴스

신문에서 오보가 비난받지 않은 맥락은 1920~1930년대 잡지에서 야담, 실화, 애화(哀話), 수기, 익명 필자의 미행기사, 정탐기, 경험담, 대담, 앙케이트 같은 실사(實事)와 실사적(實寫的) 허구가 양산되었던 정황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능하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연파의 기사들이 식민지 당대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는 믿음 또는 기대, 즉 필자와 독자

67) 一千萬衆의 心琴에 부딪친 조선 10년간 喜悲曲(1930.4.1). 『동아일보』, 3.

간에 일종의 ‘읽기계약’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과 보도 외의 영역에서 취미독물(趣味讀物)로 등장한 대중 잡지의 수기, 실화, 정담기 등의 장르가 명칭에서는 기록성을 강조하면서 허구적 실감(實感)을 교직했어도 사람들은 이를 당대 현실을 기록하는 광의의 기록서사로 받아들였다(이경돈, 2004). 신문과 독자 사이에도 이러한 목적이 작용했을 것이다. 기자가 기사에 남겨 놓은 여백들은 식민지 대중의 현실인식, 신문기사 작법에 대한 이해, 기대와 희망의 감정으로 해석되고 재배치되는 것이다. 신문이 지식인의 총 집합소가 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 현실에서 근대적 지식, 학력과 문장력이 요구되는 신문 기자직의 다수가 문인들이었던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⁶⁸⁾ 그 근처에는 민족 사회의 ‘감정적 현실’(emotional reality)을 구성하는데 문인이 적합했던 이유도 있다. 근대적 신문과 잡지가 대중화되는 초기 단계, 즉 아직 객관적 사실보도의 관행이 확립되기 전 단계에 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식민지에서 문인기자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민족사회에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문 기사는 ‘대중생활의 이해와 흥미, 호기(好奇), 눈물과 웃음, 흥분과 경악, 전율을 주는 모든 그날의 일을 모으고 변화하는 사회형태에 부단(不斷)한 주의와 예리한 단안(斷案) 밑에 길모퉁이에 쓰러진 어린 거지의 죽음에도 확대경을 비추어 인생사회의 비극의 말씨(기사)를 그 날의 대중적 의사와 감정에 던져 반향(反響)의 음을 듣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⁶⁹⁾ 신문 사회면을 애사(哀史)이자 인정사(人情史)로 규정한 1920년 창간 초기에도 그렇지만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이면을 상상하고 감정적 개입과 적극적 해독을 하도록 독려하는 식민지 상황에서는 문학적 글쓰기가 유용했다. 소설가 현진건은 『시대일보』 사회부장을 거쳐 『동아일보』 사회부장(1928~1936)을 역임했는데 사회면 편집의 기준 또는 뉴스밸류가 있는 기사는 극적 요소가 있는 기사라고 단언하였다. 천재지변에서 인사(人事) 만반에 이르는 모든 것이 기사거리이지만 그 중에서도 ‘뉴스밸류’가 있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집단적 사회적 사실 또는 생명, 애육, 재산, 인정에 관한 모든 인간사를 포함한 것으로 극적사실과 광경을 연출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극적’이라는 요소가 막연하나마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회면 기사의 열의

68) 1920-30년대 활동한 대표적 문인기자들로는 김억, 주요한, 민태원, 염상섭, 황석우, 박종화, 현진건, 노자영, 나도향, 안석주, 김기진, 박영희, 이서구, 김을한, 김형원, 이익상, 심훈, 박팔양, 김동환, 조명희, 최학송, 이선근, 서항석, 이하운, 이현구, 노천명, 이석훈, 이선희, 김기림, 이종명, 이태원, 이무영, 등이 있다(박용규, 1994, 197-209에서 참조). 문인기자는 사회부와 학예부를 주로 담당했지만 학예면은 1-2인이 외국의 신문, 잡지, 외부청탁 원고를 편집했으므로 사회부에 배치된 기자들이 더 많았다.

69) 조선신문기자론과 評(1931.9). 『彗星』, 제1권 6호, 58~59쪽.

여덟 아홉은 대개 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극적 요소가 많을수록 기사는 더욱 생동, 발랄, 감흥의 광채를 발한다면서 선배기자들의 주관을 버리고 엄정한 객관을 지키라는 요구는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교훈이고 받을 수 없는 주문이라고 반박했다.⁷⁰⁾

극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사회면 기사가 극적인 구조, 인물, 갈등, 파국과 화해 또는 결말이 있는 내러티브(서사) 구조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연관된 사건들 혹은 사건의 요소들을 이야기 형태로 독자에게 제시하는 유형의 실사서사(實事敍辭)가 식민지 사회면 기사의 작법(作法)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사실을 서사형식으로 구성할 때 사상(捨象)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사건의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중립, 몰가치적 태도이다. 신문의 보도위주의 변화, 즉 의견보다 사실을 중시하여 뉴스 탐구수집에 총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문맥에서 강조된 것은 뉴스란 '다수인의 흥미와 주의를 야기할 중요한 사실을 신선한 채로 지식군(智識群)의 독자에게 제공하는 부패(腐敗)할 성질(性質)의 상품'이라는 것, 신문의 신속성과 상품성이다.⁷¹⁾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신문이 의견이나 논설이 아닌 보도위주로 가고 상품화, 영리화, 모던화(아메리카화), 기계적 문필노동자화의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논의들에서 강조된 것은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아니라 상품성인 것이다.⁷²⁾ 치열했다는 신문들의 특종경쟁은 상품성을 향한 경쟁이었다. 1930년대 노장의 총독부출입기자(조선일보, 사회부차장)로 외근기자로서는 명예로운 별칭인 '미문(美文)의 유격(遊擊)대장'으로 불리운 홍중인(1903-1998)의 강점은 '독물(讀物)기사를 잘 쓰는 걸로 유명했는데 소연(騷然)한 그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잘 캐취해서 여유있고 인상적인 필치로 표현하는 기재(奇才)'였다.⁷³⁾ 이는 보도위주의 상품화의 변화와 뉴스를 실사적 서사로 간주하는 글쓰기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신문기자는 성실, 민속(敏速), 정확의 직업적 도덕성과 함께 매개적이고 선구적인 지식직공(智識職工) 이상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 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⁷⁴⁾

정치적 권리가 철저히 부정된 식민지에서는 신문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감정적 연대와 공통의 사회적 의식을 배양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며 이 맥락에서 사회면

70) 현진건(1930.8). 사회면과 편집, 『철필』, 18~20쪽.

71) 오기영(1930.1.12). 신문소고 5, 『동아일보』, 3.

72) 千斗上(1930.9). 사회조직의 변천과 신문, 『철필』, 24~27쪽.; 이선근(1930.9), 최근 조선의 찌뉘리즘 측면관, 『철필』, 19~20쪽; 김동진(1930.7), 노기자들의 수기, 『철필』, 55~59쪽.

73) 이태우(1937.6). 현역신문기자군상, 『백광』, 42~51쪽.

74) 안재홍(1930.7). 기자도덕에 관하여, 『철필』, 5~7쪽.

의 기사들은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사건의 극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공감을 극대화하는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이 공감은 민족주의를 배양하거나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강한 공통성의 경험과 함께 민족정체성을 자가(自家) 인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식민지에서 정치는 발설할 수 없어도 의식과 감정 수준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6. '사회적 사실'의 정치적 서사화 : 식민지 '사회면'의 감정정치

1920년대엔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新聞及新聞記者』가 수입되었고⁷⁵⁾ 사회부기자들의 단체인 무명회 및 철필에서 주최한 '신문강연대회',⁷⁶⁾ 전문서 『新聞學』(1925)이 발행되었으며 1930년에 들어서면 신문지면에 신문학이론이 소개되고 잡지 『철필』과 『찌-날리즘』을 통해 서구의 신문학이론이나 신문기능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장되어 갔다. 신문은 초기 의견/주장보도위주에서 논설이 중요한 시대를 지나 객관적 사실의 신속 정확한 보도가 위주가 되고 있다는 저널리즘 일반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⁷⁷⁾ 1930년대 광고판매 경쟁은 식민지 신문기업의 상업화 및 보도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변화와 맞물려 있다(유선영, 1992, 297~306; 박용규, 1995). 이러한 변화는 신문경영과 편집 면에서 두드러졌고 신문 상품론, 공장식 기사제조, 지식직공화, 기계화 등 속보 위주의 보도주의에 대한 비판도 늘어났다.⁷⁸⁾

하지만 이런 상업화, 영리화의 논의에서 사회면은 예외적 위치에 있다. 논설을 통해 주장했던 이즘의 약화와 저급한 모더니즘의 독물(讀物)이 만연한다고 논할 때 그것은 논

75) 新聞及新聞記者(1922.7.16). 『매일신보』, 3.: 동경에서 발행되는 잡지. 일본기자연감, 신문업계총람, 신문의 위상, 독자관계, 기자의 품성도야 등의 글이 실려 있다고 광고했다.

76) 신문강연개최(1925.2.3). 『동아일보』, 3; 진조선기자대회(1925.4.17), 『동아일보』3.: 철필구락부 주최 신문강연회는 10전 입장료에 최원순, 이서구, 민태원 등 기자들의 신문의 사회적 의의, 신문재료 취재의 희비와 제작과정, 외근기자의 고락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77) 일례로 1923년 『개벽』의 기사 중 '신문당국자에 경고하는 일언'에서 필자는 사실 그대로만 보도해 주면 될 것을 사회면 기사의 채택과 시비판단을 기자 자신이 미리 헤버리고 심지어는 私評까지 섞어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斗斗生(1923.7). 신문당국자에 경고하는 일언, 『개벽』, 제36호, 63-64쪽.

78) 김경재(1935.3), 조선신문의 대중적 비판, 『개벽』, 25~26쪽; 오기영(1934.5). 신문인과 新聞道, 『신동아』, 83쪽; 김경재와 오기영은 신문이 지도적 계몽의 태도, 주장하고 의식을 표현하는 임무에서 벗어나 상업적 흥미본위로 흐르고, 뉴스 없으면 신문기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부분과 학예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신문과 잡지 저널리즘의 영리화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즉, 사상과 정치를 논했던 논설이 학술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한편 대중의 일시적 감정에 소구하는 통속적 취미를 고조하는 스포츠, 에로틱 기사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비판에 신문 사회면은 빠져있는 것이다.⁷⁹⁾ 1930년대 기자들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신문 상업화는 사회부 외근기자들을 치열한 특종, 독점기사, 호외 경쟁으로 내몰았고 이는 사회면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외근기자가 아닌 학예면 기자는 '병신기자' '불구적 기자'라는 자괴감을 갖게 할 정도였다.⁸⁰⁾ 사회면은 계속해서 '빈민굴에 거주하는 가족이 썩어가는 시체 옆에서 1주일을 지낸 비참하고 암담하고 기막힌 사건'에 뉴스밸류를 두었다.⁸¹⁾

식민지에서 정치가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탐문한 이경돈은 신문 정치면은 정치적 텍스트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대중잡지 『삼천리』의 설문조사 같은 외형상 비정치적 텍스트들이 민족사회의 지도층의 의식과 의견을 드러내고 연결 짓고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는 텍스트 정치, 즉 텍스트를 통해 '정치하는 조선의 형상'을 환기시켰다고 해석했다(이경돈, 2010). 정치적 실천이 텍스트 정치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의 맥락을 고려하면 조선인들이 생산한 비정치적-사회적 텍스트에서 정치를 읽어내는 해독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조선문 신문의 증추였던 사회면이 수행한 정치를 사회적 사실의 양식화(樣式化)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신문은 식민국가(총독부) 체제에 피지배민으로 복속되어 있는 민족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감각, 현실인식, 민족적 감정 안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존재했다. 더구나 식민지민의 여론 형성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편집체제, 즉 정치가 없고 검열이 지배하는 기형적 체제 하에서 신문은 사회면에 허용된 최대치를 동원하여 정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20년대의 키워드였던 동정(同情)과 공감, 연민, 그리고 분노와 반감(反感)의 감정정치이다. 문인으로 사회부기자였던 박팔양(1905-1988)이 기자경험 중 피고석에서 심문, 기립, 선서를 거부하는 아나키스트나 재판장에게 경어 사용을 요구하면서 '너(お前)'라고 부르겠다고 말하는 사회주의자의 공판을 보도할 때 통쾌미를 느낀다고 한 것은 하나의 방증이다.⁸²⁾

이 민족 사회라는 공간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는 아니지만 식민지민의 일상

79) 이선근(1930.9). 앞 글.

80) 이하운(1930.8). 편집사담, 『철필』, 24~29쪽.

81) 김만형(1937.2). 앞 글.

82) 박팔양(1927.8). 義憤公憤心膽俱爽 痛快!! 가장痛快하였던 일. 『별건곤』 제8호, 43~44쪽.

의 저항과 실천이 일어나고 공통의 이해와 운명체임을 확인하는 정서적이면서 사회적인 공간이었다. 신문 사회면의 존재의미는 이 상상된 공통성과 공통감각을 구체적인 사건들, 현상들, 추세들, 문제들을 통해 새롭게 확인하고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의 형편을 간파할 수 있는 사실, 말하자면 사회적 사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고, 이 입각지에서 범죄, 자살, 아사, 재난, 정사, 강도와 살인도 조선인이 동정하고 공감해야 할 사회적 사실들로 간주했다. 1930년대 신문 상품화론과 보도주의 경향 속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상했지만 사회부 기자들은 여전히 사건을 가감(加減)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사건의 배후, 즉 차별이나 정당, 주의(主義)와 같은 배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과장하는 것'이 허물일 수 없으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은 흥미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³⁾ 기자가 자신의 입각지로 사건을 서사화하는 작법은 식민지배가 종식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사건을 통해 조선인의 다양한 유형의 '비참'을 형상화함으로써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한 감정적 개입을 촉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서사형식을 매개로 하여 촉발되는 감정적 개입이 식민체제에 대한 자각과 환기,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저항감으로 귀결되는 것은 신문과 독자 사이에 비참의 이면, 심리, 원인을 간파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면·3면 읽기라는 목계-해독규약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회색지대, 단단한 실체로 존재 하기 보다 유동적으로 존재한 식민지적 공공성의 영역 안에 신문이 존재했고 신문사회면은 사회적인 사실들의 정치적 효과를 겨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절박하게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도 정치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윤해동, 2010; 윤해동, 2007/2003). 식민지 공공성을 과잉해석하지 않는 선에서 보더라도 1930년대 중반 저널리즘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회인은 경제행위 및 의식에 있어서 사회적 사실과 문제를 알고 더 나아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저널리즘은 사회적 사실과 문제를 사회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사회대중이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 사명을 지닌다고 한 것은⁸⁴⁾ 저널리즘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이 일반론은 보다 함축적인 의미, 비정치적(사회적) 사실을 통해 정치적 및 사상적 인식에 도달하는 '불온함'을 내포한 사회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이다.⁸⁵⁾

83) 김을한 외(1931.8). 앞 글, 91~92쪽.

84) Y生(1935). 짜-날리즘강좌, 「짜-날리즘」, 1호, 54-55쪽.

참고문헌

『개벽』, 『삼천리』, 『별건곤』, 『철필』, 『동광』, 『동아일보』, 『해성』, 『신동아』, 『매일신보』, 『찌-널리
즘』, 『백광』

김명구 (2002).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
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집, 163~196

김현주 (2010).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
회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38집, 221~259.

김현주 (2008).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사회주의는 사회 비평을 어떻게 변하
시켰는가?. 『대동문화연구』, 64집, 8~39

김현주 (2004). 문학·예술교육과 '동정(동정)'-이광수의 『無情』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2집, 167
~193.

박명규 (2001).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체계,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59호, 51~
82.

박용규 (1995). 일제하의 언론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언론과회』, 8호, 39~83.

박용규 (1994). 『일제하 민간지 기자집단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
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주원 (2005).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127~166.

박찬승 (2007). 1910년대 도일유학생들의 사상적 동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공동연구총서』, 151~194.

박현호 (2011).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검열연
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199~273.

아키히미, 나가타 (2005). 박환무역,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조선독립운동과미국, 1910-1922』,
일조각.

우수진 (2012). 갈뚝회 소인극 연구-사실성과 동정의 스펙터클.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47~79.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제10호, 86~128.

유선영 (1992). 한국 대중 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
사학위논문.

85) 1921년 11월 언론자유와 기자권익, 여론선도를 내세운 기자단체 無名會 설립, 1924년 11월 사회부기자들이
철필구락부를 결성했다. 1926년 11월엔 경성내 신문 및 통신사 사회부기자들이 일본인도 포함된 '경성사회부기자
단'이 출범하였다. 이들 사회부기자들은 회원기자에 대한 경찰의 검거나 체포에 집단 반발하면서 경찰과 알력을 빚
곤 했다. (『동아일보』, 1928.1.21, 각사회부기자 긴급총회개최; 『동아일보』, 1928.1.22, 사회부기자 本町뿔가
금지).

- 유선영 (2014). 식민지 '문화'주의, 變容과 事後. 『대동문화연구』, 제86집, 365~407.
- 윤해동 (2003/2007).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 윤해동 (2010).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윤해동·황병주.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17~49.
- 이경돈 (2004).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46호, 249~287.
- 이경돈 (2010). 『삼천리』의 서사와 텍스트 정치-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71집, 397~425.
- 장인성 (2009). 정의와 평화-3·1운동기 정치사상에 나타난 지역과 세계. 『1919.3.1.-주체·문화기억』,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전문가 집중토론회 발제문.
- 전상숙 (200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지도자들의 대외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1호, 313~344.
- 정진석 (1982).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정음문고.
-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 채백 (2004). 대한매일신보 잡보의 내용분석 연구, 한국언론사연구회역음,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66-290.
- 최수일 (2008). 『「개벽」 연구』. 소명출판사.
- 황정현 (2011). 『앵클토크스캐빈』과 『검둥의 설움』의 간격, 『한국학연구』, 38, 549~575.

Siniawer, E. Maruko (2011). Liberalism undone: Discourses on political violence in Interwar Japan. *Modern Asian Studies*, 45(4), 973~1002.

투고일자: 2014. 06. 02, 수정일자: 2014. 07. 20, 게재확정일자: 2014. 07. 25

The Society Page of Newspaper of the colonized Korea, its politics of sentiment and modulation of social facts

Sun Young YOO

HK Professor, Sun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inquires how human interest news on society section of newspapers had been modulated as multi-layered political narratives that would consistently have Koreans consider, realize and question on colonial situation as well as ethnic identity. Under totalitarian censorship of the colonial government, newspapers could not publish reports on political issues and current affairs, so society page of human interest such as crime, accident, conflict, disaster, and many kinds of sufferings of peoples to death would take great public attention and consequently be considered as a substitute of political section. Society page had enjoyed its influence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f the colonized ethnic society and had maintained cultural-nationalist position ever since the founding of newspaper in mother-tongue in 1920. In colonial context, there is nothing non-political to the lives of the colonized, social facts would be necessary and happen to be modulated into a narrative that could trigger nationalist sentiment. For this end, news reporting of society section usually concentrated on aspects of 'Les Misérables', dramatic quality,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detail. Narrative style of news reporting got used to modulate factual informations with a proper taste of exaggera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commercial touch of exciting words.

Even in a case of death by drug abuse, news was written to indicate what made him/her drive to miserable death on street, that is, what is de facto reason of all of social problems like as migration, hunger, leaving home, crime, suicide, violence, gambling, love affairs to death, adultery, and even opium habit. Those social problems and personal sufferings appeared up on newspaper 3rd page at daily base. Readers could acknowledge and identify what the real matter that should be resolved and then blame colonialism, capitalism, and militarism for those social problems. Journalists put values on inciting the colonized to realize the national and ethnic situation and feel sympathy for their people tied up by a common destiny. In this terms, news on society section of newspaper under Colonial Occupation were encoded as narratives of politically layered text and then decoded as intriguing sentiments against colonial dominance. I argue that society page

of newspaper of colonial period engaged in a sort of cultural politics of sentiment and emotion which is a private area outside of imperial sight.

KEYWORDS society section, news reporting, narrative, politics, sentiment, miserables, nationalism, colonial occupation, newspaper